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

진안군, 관내 총 154개 단체와 위기 극복 위한 민관공동대응 실천 협약 체결

진안군은 현재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연초 방문 일정에 맞춰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관내 총 154개 단체와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극복 진안군 민관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관내 이장협의회, 경찰서, 학교, 우체국, 농협,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등을 비롯해 수많은 단체가 함께 나서며 진안군과 협력해 함께 진안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및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약기관의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협약 기관, △관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및 생활인구의 진안군 주소찾기 운동 동참,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추진 등이다.

특히 현재 진안군이 처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과 고함



진안군은 현재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부귀면 실천협약 사진)

사람기부제에도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를 함께 당부했다. 협약기관 중 하나인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 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 발전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군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어느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기관·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현안 문제로 다뤄며 진안군 인구늘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기장 청소년교류활동 개최

17일까지 무주서 우의 다져

산골과 바다 청소년 60여 명이 지난 15일 무주에서 만났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44회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간 교류 활동이 오는 17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군·기장군 청소년 교류 활동은 자매결연 지역인 두 지역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리더십과 창의력,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는 17일까지 무주반디랜드(곤충 및 천체관람)와 무주덕유산리조트(스키 및 눈썰매 체험), 향토산 목재문화체험장 등지에서 산골

문화를 체험하며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교류 첫날인 15일 두 지역의 청소년들은 한인홍 무주군수와 기장군 교육청청년과 윤연희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 입교식을 갖고 무주반디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인홍 군수는 "환경과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며 "지역 간 청소년교류활동이 무주와 기장군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더불어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본격 추진

장수군이 각종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외곽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 공동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배관을 통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장계면 소재지인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마을

1,019 세대에 98억 5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산업부의 2025년 공모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계북면 임평리 내림마을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고, 수변지역 기암사업 공모에 장수를 판문마을이 선정, 스마트빌리지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는 반암면 원대론마을과 천천면 남동마을이 포함됐다.

군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LPG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LPG 공급을 실현해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군은 LPG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작년 공급단가는 MP+60원/kg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LNG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가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 ‘최우수’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최우수 축제 2년 연속 선정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이하 낙화놀이축제)가 2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낙화놀이축제는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5천만 원의 예산 지원(군비 3천만 원 추정 시 확보 예정)을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 축제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낙화놀이축제는 현장과 발표평가에서 모두 호평을 받으며 최우수 축제로서 그 우수성을 재입증했다.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낙화놀이보존회 박일원 회장은 "최우수 축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올해는 무주안성낙화놀이만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무주안성낙화놀이 축제는 오

는 6월 6일부터 7일까지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 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낙화봉 만들기 체험을 비롯한 두문마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한지에 뽕나무 숲과 마른 측, 소금 등을 말아 낙화봉을 만들고 그것을 긴 줄에 달아 행하던 전통 불꽃놀이로, 두문리 전(前) 낙화놀이 보존회장 박찬훈 응의 옛 기억을 토대로 무주군이 복원했으며, 이후 두문리낙화놀이보존회원들에 의해 전통 방식으로 전승·보존돼오고 있다. 2016년 10월 14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해마다 안성면 두문마을에서 개최하는 무주안성낙화놀이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등에서 주민들(두문리낙화놀이보존회원)에 의해 재연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설 명절 대비 식품위생업소 59개소 점검 실시

장수군이 오는 20일까지 관내 식품위생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한 것으로 성수식품, 가공식품, 농·수산물,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3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4개소, 기타식품판매업 3개소로 총 59개소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제조시설, 설비 및 가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장수군의 식품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고,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상반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부터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개 읍·면 38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총기 안전사고 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지침, 안전 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알렸다.

특히 군은 피해방지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유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청년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착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청년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 기업 분야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만18세~39세)이어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및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가능하며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htd.ezwd.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